

제4차 정관개정소위원회 개최

제4차 정관개정소위원회가 4월 22일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영호 권철환 수석부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회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종중 회장, 권갑현 전례위원, 권오을 부회장, 권오의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관개정은 2024회계년도 경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5조 회원의 자격이 기준에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권문으로 입적된 부(婦, 며느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안동권씨 남녀 및 그 배우자로 한다로 개정하여 사위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 정신으로 돌아가는 조치이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조항에서는 임원이 회비 2회 미납 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항목을 자격이 정지된다고 완화시켰다.

제8조 조직에서는 제9조 이사직이 폐지되고 이를 종무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이사회를 폐지하고 종무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또한 상임부회장직을 폐지하고 부회장으로 통합했다.

제10조에서는 사무총장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제11조 사무총장과 제29조 각 국장 및 직원은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명 중 1명은 교차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고, 감사실시 시에는 소정의 감사비를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제10조)

제14조 의결기구에서는, 총회, 상임위원회, 회장단회, 이사회, 종무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두었으나,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기구는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의결기구



로 둔다로 개정했다.

제15조 총회에서는, 기존에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바꿨다.

또한 회의 소집권자가 고의 또는 유고로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재직임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제16조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는 규정을, 회장 소집 이외에도 상임위원 1/3 이상의 의결에 의한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제22조와 23조는 신규 조항으로 추가했다.

제22조【성원】본회의 각종 회의의 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정기, 임시), 회장단회, 종무위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된다.

②상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③상임위원회에서 자산취득, 처분(매도, 분할, 원형변경, 담보, 기부) 등 재산에 관한 심의를 할 때는 재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성원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제③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부득이한 경우 임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수로 산정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총회(정기, 임시), 회장단회, 종무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성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로 산정한다.

③자산취득 및 처분(매도, 분할, 원형변경, 담보, 기부) 등 재산에 관한 심의를 할 때의 상임위원회와 총회는 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단, 이 경우에는 위임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의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수입 및 예산 결산에서는, 결산서에 은행잔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했다.

제28조 부서 및 직원에서는,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을 사무부총장으로 격상시켰다.

정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차에 걸쳐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개정안은 6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면 새로운 정관으로 탄생하게 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디지털에 눈뜨는 신중년, AI와 친구 되는 법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야공파)



매일 보내 줘 같은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AI는 일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여부를 추적하고 리마인드까지 해준다.

“AI는 나를 관리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다.”

더 나아가, AI와 함께하는 루틴 활동은 인지 기능 자극에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

어 매일 짧은 글을 쓰거나, AI와 대화형 일기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뇌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신중년에게 중요한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는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AI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디지털 루틴을 건강 루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1. 스마트폰을 켜기 전, AI에게 인사해보자

아침에 스마트폰을 켤 때, 습관처럼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본다. 이때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일정 도와줘”라고 AI에게 말을 걸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AI는 매뉴얼보다 친절하고, 검색보다 실용적이다. AI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내 하루의 출발을 ‘나 중심’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자연스레 반복하다 보면, AI는 내 생활 패턴을 익히고 더 유용한 방식으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혼자 말처럼 시작한 인사는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일상을 바꾼다.

2. 궁금한 건 검색보다 AI에게 물어보자

예전엔 ‘검색’이 정보 습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형 AI’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에게 좋은 관찰 운동은?”, “대구 근교 한적한 여행지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AI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다. 신중년에게는 ‘시간을 아끼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는 수십 개의 링크를 둘러볼 필요 없이, AI와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3. AI와 함께 글을 써보자

글을 쓴다는 것은 내면을 돌아보는 가장 깊이 있는 작업이다. 신중년이 지나온 삶은 수십 권의 책보다 풍부한 콘텐츠다. AI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감성적 언어로 다듬는 데 도움을 준다. 한 줄 일기, 회고록, 감사편지도 좋다.

“더 부드럽게 써 줘”, “응원하는 말투로 바꿔 줘”라고 AI에게 요청해보자. 그 결과물은 단지 글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또한 AI는 글을 요약하거나, SNS에 올릴 만한 제목과 해시태그까지 제안해줄 수 있어 실생활 활용도 높다.

4. AI와 함께 루틴을 만들어보자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신중년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다. AI는 매일 걷기, 아침 명상, 건강식단 루틴 등 다양한 일과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21일 동안 맨발 걷기 실천표 만들어 줘”, “긍정 문장 3개씩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야공파)

매일 보내 줘 같은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AI는 일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여부를 추적하고 리마인드까지 해준다.

“AI는 나를 관리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다.”

더 나아가, AI와 함께하는 루틴 활동은 인지 기능 자극에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

어 매일 짧은 글을 쓰거나, AI와 대화형 일기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뇌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신중년에게 중요한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는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AI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디지털 루틴을 건강 루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매일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실천을 기록하는 반복은 곧 두뇌 회로를 단련하는 뇌 운동이다. 더불어 이러한 습관은 나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메타인지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AI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 아니라, 나 자신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돋는 디지털 거울이다. 생각을 구조화하고 선택을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힘이 자라난다.

5.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연결되자

‘기술은 결국 관계다.’

AI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익히는 것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와 연결되는 일이다.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함께 배우면 학습 효과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지만 강력한 확신이 생긴다.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와 기능이 많아도, 질문하고 따라 하다 보면 금세 ‘내가 쓰는 기술’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도 만나고, 자존감도 회복된다.

맺음말 : AI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이다

AI는 경쟁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고 망설일 때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친구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갈 필요도,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 그저 마음속 ‘작은 결심’ 하다면 충분하다. 의숙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 순간부터 AI는 삶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당신의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울산 세종관문 문중 양촌 권근 삼대묘소 참배



울산 세종관문 문중(회장 권오갑) 후손 43명이 5월 24일 충북 음성군 방축리에 위치한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참배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고 음성군 문화해설사가 삼대묘소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세종관문 문중에서는 참배 기념으로 10만원을 현성하였다.

권오협 문충공 종종 회장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농 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마산 창원 진해 종친회 제78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마산 창원 진해 종친회 제78회 정기총회(회장 권오수)가 2025.5.18. 오전 11시 마산청수오리별관에서 종친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영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78회 정기총회는 권중근(91세) 원로님의 개회선언으로 국민의례, 태사공 시조님에 대한 망배, 권문의 종지 제창, 내빈소개에 이어 운영진 권문발전회, 청장년부, 여성부 소개와 종친회장 인사, 감사(재무)보고,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권오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2년간의 마 창 진 종친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헌신과 봉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종원간의 약속을 다짐했다.

권영삼 마창진종친회 부회장

대종회는 보학 관련 책자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

대종회에서는 현재 보학 관련 책자 등 그 어떤 책자도 발간하지 않습니다. 간혹 족친들로부터 보학 관련 책자를 받았다는 전화가 대종회로 걸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종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점 주변의 다른 족친들에게도 널리 전파하여 보학 책자 판매와 관련된 사기행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